

데스크 시국



박진표
경제부장

1990년대 광주 총장로를 비롯한 도심 변화기는 젊음으로 넘쳐났다. 광주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젊은 인자들이 몰려오는 ‘호남 교육의 중심지’였다. 2004년 광주 인구는 14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 중 30%는 전남 출신이었다. 당시만 해도 전남 청년들이 광주에서 대학을 마치고 호남권 기업과 공공기관에 진출하는 ‘전남→광주’ 인재 순환 구조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 광주 20대 청년 중 34%가 전남 출신이던 그 시절, 광주는 전국을 대표하는 ‘청춘의 도시’이기도 했다.

탈광주에 무너진 인구 140만명

하지만 20여년이 흐른 2025년 현재, 광주의 심장 박동은 점점 느려지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광주 인구는 139만 9880명으로 21년 만에 140만명 선이 무너졌다. 거리에는 청춘보다 고령자의 발걸음이 더 많아졌다. 올 1분기 광주를 떠난 인구는 494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20~30대 청년층이었다. 2000년대 초 5만명에 달했던 대학생 수는 3만 2000명대로 줄었다. 광주에 거주하는 전남 출신 청년 비율도 19%까지 하락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졸업생의 진로는 이 같은 청년 이탈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GIST 졸업생 중 64.1%가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이 가운데 59%는 수도권이나 KAIST로 진로를 정했다. 광주에 남아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은펜칼럼



송민석
수필가·전 대학 입학사정관

오래전 일이다. 56년 전 ‘국군의 날’ 기수단에 뿔뿔히 서울 시민의 환호 속에 꽃목걸이 걸고 여의도에서 동대문까지 시가행진을 한 적이 있다. 행사 후 보상 휴가를 받아 시골집에 다녀왔다. 당시 월남전 파병이 결정된 상황이었으나 참전 사실을 부모님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집을 떠난 불효가 한동안 응어리로 남아있었다. 유교의 경전인 ‘예기(禮記) 곡례편에 보면 부모를 대하는 예법이 나와 있다. 밖에 나갈 때는 목적지를 말씀 드리고(出必告), 집에 돌아와서는 얼굴을 붉고 돌아왔음을 알려야 한다(反必面)는 뜻이다. 이는 자식이 언제나 예의를 갖추고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주 소통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한만큼 부모에 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자녀들에게서 연락이 없어 서운해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된다. 그러면서도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경향

기고



한기민
전 전라남도 경우회장
목포고학대 초빙교수

2022년 그해 여름은 우리에게서 유난히도 더웠다. 당시 행안부 장관이 느닷없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라는 방안을 들고 나와 전국 전·현직 경찰관들을 곤혹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그 허무맹랑한 주장을 들어보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해 ‘총경 이상 임용제정권,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 등의 국무회의 상정권’ 등을 주장하면서 이는 경찰행정의 독자성 확립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억지논리를 펴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경찰관들과 퇴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규정에도 없고 경찰청 독립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

고향 떠나는 광주 청년들

비율은 극소수다. 이유를 찾아볼 것도 없이 광주에는 GIST 졸업생을 받아줄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게 주 원인이다. 광주의 일자리 부족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올 5월 기준 광주 전체 고용률은 61.3%인데 청년 고용률은 38.9%로 전국 평균(46.5%)보다 크게 낮다.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중견기업 비율은 0.4%에 불과하고 업종도 자동차·부품 산업에 한정돼 있다. 청년 임금 수준 역시 서울 대비 30%가량 낮은 게 현실이다. 광주 청년들 사이에서 “고향이 싫어서가 아니라 머물 이유가 없어서 떠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지역 내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 이탈의 원인으로 ‘서울에 대한 동경’이나 ‘문화 인프라 부족’ 등을 지목했지만 정작 청년 당사자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수도권 청년들까지도 “양질의 일자리만 있다면 지방 취업도 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일자리’의 질은 청년 유출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채용시장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청년 구직자의 63.4%가 “좋은 일자리만 있다면 지방 취업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들이 지방 취업의 조건으로 꼽은 요소는 ‘높은 급여 수준’(78.9%), ‘양질의 복지제도’(57.1%), ‘워라벨 실현’(55.8%), ‘고용 안정’(42.5%), ‘직무 역량 개발 기회’(29.1%)였다. 청년 유출은 단순히 지방도시의 매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일자리’의 질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다. 광주시도 나름대로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시의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는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시와 기업이 각각 250만 원을 매칭해 총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연간 모집 인원이 겨우 300명에 불과하다. 이 300명 중에서도 서울행을 선택했다가 해당 제도 때문에 광주에

출필곡 반필면(出必告 反必面)

이다. 과연 바빠서 그런 건지 무관심해지고 있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부모이기에 이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다. 이제는 사라져야 할 말이다.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요즘 세대는 노트북에다 인터넷, 휴대전화 등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이고 더구나 보지 않고도 문자를 보낼 수 있을 만큼 기기에 익숙해 있어서 친구끼리 하루 수십 통의 문자를 주고받으며 산다. 그러면서도 부모에게는 단 몇 분도 안 되는 시간을 쓸 수 없다면 과연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출근길 퇴근길에 전하는 안부 전화 한 통화가 부모님께는 하루의 활력이 될 수 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전화로라도 ‘출필곡 반필면’ 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여성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전화해야 훗날 후회가 없을 것이다. 요즘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지역의 문화 관련 단체에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조선시대 양반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보는 선비 교육을 하는 경우를 본다. 향교나 한옥마을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은 조선시대 유생처럼 도포에 유건을 쓴 의젓한 모습으로 사자성어를 배우며 선비 체험을 하

경찰국 폐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였다. 국공립 관련 대부분의 기관들이 각자의 독립성과 업무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수사권을 가진 경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한 경찰국 신설은 그 의도마저 의심받아 마땅한 만큼 전국적인 시위와 삭발, 기고, 인터뷰 등을 하면서 결사반대로 대응했다. 당시 국가경찰위원회와 광주시의회에서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내용과 입법체계상 문제점, 시대역행적인 행위 등을 지적하면서 유감과 동시에 법적 대응 등 강력 대응 입장까지 표명하였다. 또한 여러 시민 단체와 언론에서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정권 연속화 조치”라며 투쟁대열에 힘을 보탰다. 그럼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장관은 전국 경찰관서를 방문하면서 경찰 달래기에 주력했고 결국 ‘경찰국 신설’을 담은 직제 안을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했던 것이다.

머물게 된 청년이 몇 명이나 될지도 의문이다. 지역 청년들은 이 같은 ‘단발성 혜택’보다는 청년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싶어질 수 있는 도시 구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쟁력 있는 일자리와 직무 기반 인재 육성 시스템 등이 마련된다면 굳이 광주를 떠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맞은 마지막 기회

그나마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광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중심에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600개 이상의 AI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이 들어섰고 AI 교육원 등을 통한 인재 양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태운출 미팅에서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하루빨리 풀고 바로잡아야 할 과제로 보인다. 광주가 청년을 끌어들이는 또 하나의 호재는 2027년 개장을 앞둔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다. 청년이 중요시하는 소비와 문화, 여가의 중심지 역할이 기대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좋은 일자리와 여가·문화 인프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마지막 유인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공간 제공이다. 광주의 한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로 이직한 수도권 청년 대부분이 지하철 역세권을 선호 거주지 조건으로 꼽는다. 서둘러 도시철도 2호선을 완공하고 역세권 주변에 청년층이 만족할 만한 주거지를 조성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것이다. 때마침 수도권 청년들조차 ‘좋은 일자리’만 있다면 지방에 머물 의향이 있다고 하니 1990년대 그때처럼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광주’의 재탄생을 기대해 본다.

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전문 생활 습관과 올바른 언행을 지도하는 것이 사범직의 품성을 길러주는 방법의 하나다.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이 아닌가 한다. 갈수록 가정교육의 부재, 대중매체의 역기능, 입시 위주의 과열 교육은 도덕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자리에 들고 나는 일에 대한 아픔’은 아랫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배웠다. 유독나 검도와 같은 격투기 운동에서도 경기 규칙을 보면 예절로 시작해서 예절로 마무리한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예의와 양치, 도덕을 알고 실천하기 때문이다. 어릴 적 부모나 나갔다가 슬그머니 들어와 인사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어른들이 여간 상심해하지 않았다. 아침저녁으로 꼬박꼬박 인사를 받겠다는 뜻이 아니다. 자식이 밖에 나가서 행한 일이 바르지 못할 때 집에 들어와 부모님 뵈기를 피하기 때문이다. 얼굴에 생채기라도 나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왔을 때 앞마당으로 바로 들어서지 못하고 슬그머니 들어서 제방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어릴 때 내가 멋멋하지 못했을 때는 ‘출필곡 반필면’이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율이자 소통의 기회였지 않았나 여겨진다.

돌이켜보면 지금도 당시의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찰은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앙경찰위원회와 행안부, 언론, 여러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를 항상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의 잘못된 제도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행안부내의 경찰국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전국 경찰과 경우회원들은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하지는 데 뜻을 모으며 이런 잘못을 막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각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 당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국 총경회의의 참석자들과 반대 투쟁에 참여했던 다수 경찰관들의 피해과 불이익 등 가슴 아팠던 일들은 수없이 많다. 다행히 그들에게 내려졌던 불명예를 새 정부에서 회복해 준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대한민국 치안을 위해 항상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경찰관들에게도 박수와 격려를 보내 줬으면 한다.

社說

노사 갈등에 GGM 생산 차질 이대로 방치할 건가

승용차 ‘캐스퍼’ 생산업체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장기간 노사 갈등으로 생산 차질 등 복합적인 위기에 빠졌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노동조합 설립과 교대근무제 도입 등을 놓고 노사가 마찰을 빚으면서 소비자들이 주문 후 차량을 인도하기까지 22개월 가량이 걸릴 정도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급급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교대 근무제를 도입하면 생산량을 늘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데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주문이 있더라도 제때 생산을 못하고 있다. 불경기 속에 임금이 없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다른 업종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노조가 노동 3권을 주장하며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2교대 근무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회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광주형일자리를 출범 취지에 맞게 연간 35만대 생산까

지는 임금과 근로 여건을 노사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사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노조원을 제외한 다수의 직원들도 교대 근무 부재와 반복되는 특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GGM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대신 고용 안정과 복지를 약속하고 출범한 만큼 사측도 무작정 노조만을 탓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임금이 끊기면 회사 존립이 위협받는다라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노사가 스스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GGM이 전국 최초의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출범한 만큼 공장 시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핵심 조율자로 나서야 한다. 주도적으로 노사 간 협상의 물꼬를 트고 현대차와 정부를 상대로도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정부도 제2, 제3의 상생형 일자리 탄생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의 안착에 힘을 모아 야 할 것이다.

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특화전략으로 어필해야

광주지역 문화계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에 모두 분관이 있는데 호남권만 없어 유치 명분도 충분하다. 때마침 정부가 경기 북부, 강원, 호남권 등 3개 권역을 대상으로 분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호남권에서는 여수와 전북도가 유치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 주최로 그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포럼’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세계 5대 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보유하고 있고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라는 점 등 광주관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넘쳐났다. 광주시가 일찍이 옛 신양파크호텔을 부지로

정하고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것도 높이 살 만한 노력이다. 그렇지만 필요성과 당위성 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사업이나 응모자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유치해야만 하는 이유를 주장하며 설득한다. 필요성과 당위성은 누구나 주장하는 것이다. 목표를 이루려면 광주만의 특화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광주관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점으로 타 지역 분관과의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 광주의 정체성과 연계한 특성화 방안이 한가지 예가 될 것이다. 광주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에 대한 통찰을 갖춘 도시다. 여기에 광주의 정체성이 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미디어아트창의도시 등 광주만의 정체성이 바탕이 된 특화된 미술관으로 한국 미술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기겠다는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無等鼓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는다. 때로는 조언을 하고 때로는 지적을 한다. 하지만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이라도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말은 의도보다 태도가 먼저 전해지고 단어보다 어조가 깊게 남기 때문이다. 가르친다는 말은 듣기에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는 쉽게 드러난다. 상대를 낮추면서 행해지는 가르침이라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태도일지 모른다. 진심이 담긴 조언은 믿음이 있을 때 마음에 닿는다. 존중이 없는 지적은 비난이 되고 신뢰 없는 충고는 명령이 된다.

도록 마음을 움켜쥐고 살아간다. 소설가 박완서는 생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말은 마음을 데우기도 하고 데이게도 한다”고 했다. 말 한 줄이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말이 불쑥 날아와 누군가의 마음을 데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방승인 김제동은 토크콘서트에서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라는 말을 자주한다. 그 한마디에 관객들은 눈물을 흘린다. 말 한 줄이 사람을 얼마나 다독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건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에 담긴 마음

충고와 비난은 분명히 다르다. 작각해서는 안 된다. 충고나 조언은 결코 비난이 나 목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적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의 마음을 꺾는 말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의도치 않은 실언과 상처를 입히기 위해 내뱉는 말 역시 분명히 다르다. 같은 말이라도 말투와 상황 그리고 말 속에 담긴 ‘마음’이 그 무게를 바꾼다. 말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꺾기도 한다. 한마디의 말로 누군가는 다시 힘을 얻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래

사람은 누구나 제마디의 이유와 속도로 살아간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해간다. 그 과정에서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평가절하해 도 된다는 허락은 주어지지 않는다. 세상이 합부로 대대도 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니 누군가의 마음을 지나는 당신의 말이 따뜻한 바람이길 바란다. /이보람 예향부 차장 bora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